

이야기 시리즈 7

준마 이야기

공병호 지음



훑어보기

고작 30여 년 만에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 우리로서는 천년 이상이나 번영의 길을 달렸던 다른 나라의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여기에 묘사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시오노의 작품 속에 그려진 로마인들의 삶으로부터 오늘의 한국인들이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자질 있는 지도자의 선택이 나라의 번영을 좌우한다. 로마사에는 자질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등장한다. 한 나라가 깨어있는 지도자를 갖는 것은 상당한 운이라고 할 수 있다. 시오노 작품 속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자질 있는 지도자는 선견지명과 실행력을 갖춘 인물로, 로마왕정을 종결하고 공화정을 출범시켰던 루키우스 유니우스 브루투스(기원 전 509년)이다.

그밖에 2차 포에니 전쟁의 중반에 등장하는 스키피오라는 장군 역시 훌륭한 지도자의 반열에 든다. 로마사에서 훌륭한 지도자상은 카이사르에 이르러 그 절정을 이루게 된다.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자질인 지성, 설득력, 지구력, 자제력, 그리고 지속적인 의지라는 다섯 가지 덕목을 모두 갖추었던 인물로 카이사르를 들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정치체제의 현명한 선택이 번영의 기반이다. 로마 융성의 원인은 당사자들이 만들어낸 제도에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기분만큼 변덕스러운 것은 없으며, 기분을 새롭게 해달라고 아무리 설득해도 모든 사람이 기분을 일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분을 일신하려면 일신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 수밖에 없다. 즉 제도화할 수밖에 없다.

셋째, 인치人治와 자의적인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를 법law이 지배하는 사회로 변화시키기 위해 법제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 로마가 거대한 제국을 이루면서 수많은 민족과 종교를 로마라는 하나의 나라 안에 품고 비교적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법의 지배the rule of law’라는 대원칙을 확립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넷째, 개방적인 체제로 국가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 세계사에서 로마인만큼 개방적이었던 민족도 드물 것이다. 로마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최초의 세계인 cosmopolitan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의 개방성은 정복민들에 대한 시민권 부여와 정복민들에게 거의 완전한 가까운 자치를 허용하는 것을 보면 된다.

뿐만 아니라 로마인들의 삶에 있어서도 개방성은 돋보인다. 로마인들은 항상 배움에 대해 인색하지 않았다. 자신들이 모든 면에서 앞설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한 것이 로마인이었다. 심지어 식민지인 그리스의 노예들을 초청해서 배움에 열심이었던 적도 있다.

다섯째, 개인의 능력 차이와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여야 한다. 로마인은 세계사에서 다신교를 인정하면서 제국을 건설하였던 유일무이한 민족이었다. 다양성은 오늘의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그 밖에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독점monopoly은 강력히 비난받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여섯째,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로마인은 법과 도로를 남겼다. 오늘날 로마를 방문하는 사람이 흔히 들르는 곳이 기원 전 312년에 만들어진 아피아가도라는 도로이다. 로마시대에 만들어진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튼튼한 외관을 온전하게 간직하고 있다. 로마인들이 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열심이었던 것은 도로가 제국을 운용하는 데 필수품이었기 때문이다.

일곱째, 돈 대신에 일자리를 주는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최고권력자가 된 카이사르에 대해서 빈민들은 기대가 컸다. 왜냐하면 그는 민중파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이사르는 이 같은 복지정책에 과감한 개혁을 시도한다. 그는 “실업은 당사자의 생활수단을 빼앗는데 그치지 않고 자존심을 유지하는 수단까지 박탈하는 것이다. 보통 사람은 무슨 일이든 일을 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확인한다. 따라서 실업문제는 복지로는 해결되지 않고, 일자리를 주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된다”고 굳게 믿었다.

여덟째, 보고 싶지 않은 것도 볼 수 있는 민족이어야 한다. 시오노는 그의 작품 전체에서 거듭 카이사르가 『내전기』란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것밖에 보지 않는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다. 대의명분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흔히 현실에서 명백히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조차 눈길을 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마도 이 같은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심성이 아닌가 한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 나름대로 세계관을 갖고 살아간다.

때문에 자기의 세계관에 잘 맞지 않는 일이나 사건을 애써 무시해 버리려고 하게 된다. 특히 한 민족 전체에 이 같은 이야기를 적용하면, 민족성이 대의명분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이념적이고 논쟁적인 민족일수록 보고 싶은 것만을 볼 확률이 높다. 현실에 애써 눈을 감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야 마는 것이 역사의 교훈인 것이다.

아홉째, 정신적 자본Mental Capital을 축적해야 한다. 어떤 사회라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도로나 항만과 같은 물적 기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기반이 필요하다. 역사에서 무력만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나라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를 재패할 수 있었던 스파르타인에게는 생활철학의 빈곤이 쇠퇴의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에 반해 로마인들이 갖고 있었던 강력한 정신적인 토대는 로마가 많은 민족과 종교를 동화하면서 세계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열 번째, 현장을 중시하고, 현장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로마는 전쟁을 통해서 제국을 이루는데 성공한 나라이다. 때문에 로마 시대의 생산은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로마 군대를 움직이는 핵심적인 인물들은 소대원의 투표로 선출되는 백인대장들이다. 이들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베테랑으로서 전술을 정확하고 충분하게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로마의 군기와 전통을 유지하면서 로마 군대의 막강한 전력을 유지했던 사람들은 현장 정보에 정통한 백인대장들이었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로마군이 이룬 개선활동은 눈부실 정도이다. 전술과 무기에서 이루어진 끊임없는 개선활동이 로마군의 전력 증강에 크게 이바지했다.

열한 번째, 역사적 경험을 중시하고, 역사로부터 배워야 한다. 로마인의 성공에서 큰 획을 긋는 사건은 로마가 왕정 체제의 문제점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일어나게 된다. 로마는 당시 그리스의 앞선 체제를 배우기 위하여 3명의 원로원 위원으로 구성된 시찰단을 아테네에 파견한다. 후진국 로마의 선진문물 시찰단이 파견되던 해는 기원 전 453년부터 기원 전 452년까지 1년 동안이었다. 당시 로마 원로원 위원들은 아테네가 가진 어두운 점을 정확하게 꿰뚫고 그 단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게 된다.

1. 왜, 로마인가

지난 30여 년의 노고와 행운에 힘입어 한국인의 살림살이는 몰라보게 좋아졌다. 우리는 어디에 내놓아도 그다지 손색 없는 나라를 만드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요사이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여러 사회현상을 보면, 걱정이 앞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성장속도는 점점 더더지고, 연이어 계속되는 무역수지 적자폭은 늘어만 가고 있다. 다양한 이익을 앞세우는 이익집단의 목소리는 날로 커지고, 임금 상승폭은 거의 두 자리 숫자로 정착되었다.

우리 사회의 저효율·고비용 구조를 고치자는 이야기는 무성한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나가야 할지 막막한 감도 지울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에게 고성장을 가져다 주었던 법이나 제도, 그리고 관행이나 관습만으로 고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새로운 문제나 새로운 환경의 전개에는 거기에 걸맞는 체제 개혁과 구성원들의 의식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어떤 면에서 보면 새롭게 나라를 세운다는 각오로 체제 개혁을 위해 전력투구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고작 30여 년만에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에 직면한 우리로서는 천 년 이상이나 번영의 길을 달렸던 다른 나라의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여기에 요사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시오노 나나미란 작가의 화두話頭는 오늘날 지각 있는 한국인들이 고심하고 있는 주제인 국가나 조직이 길이 번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일이다. 『로마인 이야기』의 주제는 왜 유독 로마인만이 번영을 누릴 수 있었는가라는 흥망성쇠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녀는 책머리에서 이런 주제를 던지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

“지성에서는 그리스인보다 못하고, 체력에서는 켈트인이나 게르만인보다 못하고, 기술력에서는 에트루리아인보다 못하고, 경제력에서는 카르타고인보다 뒤떨어지는 것이 로마인이라고, 로마인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만이 그토록 번영할 수 있었을까요. 커다란 문명권을 형성하고 오랫동안 그것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로마인 이야기』는 오랫동안 고국을 떠나 있는 사람이 성장의 정점에서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고심하고 있는 고국의 사람들에게 던지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더욱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시오노 나나미란

사람의 『일본 국민에게 고함』과 같은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의 고국 사람들인 일본인뿐만 아니라 성장의 후유증을 경험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그녀의 작품으로부터 의미와 교훈을 찾을 수 있음을 뜻한다.

역사는 과거를 살았던 사람들의 기록이다. 그런데 2천년 전의 로마 역사가 오늘의 우리에게 선듯 와 닿는 이유는 아마도 과거나 현재나 인간의 모습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현대인은 비약적인 과학문명의 발달에 힘입어 갖가지 문명의 이기利器를 이용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인간들 사이의 갈등, 나라와 종교로 인한 분쟁 등과 같은 면에서 보면,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때문에 변명을 원하는 개인이나 조직, 그리고 민족은 끊임없이 과거의 역사로부터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보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얻어야 한다. 과거의 흥망성쇠로부터 배울 수 있는 민족만이 계속적인 변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새로운 나라 세우기를 염원하는 우리가 로마의 성장과 변명, 그리고 몰락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2. 로마인은 무엇을 생각하게 만드는가

자질있는 지도자의 선택이 변명을 좌우한다.

로마사에는 자질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등장하게 된다. 한 나라가 깨어있는 지도자를 갖는 것은 상당한 운이라고 할 수 있다. 시오노 작품 속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자질 있는 지도자는 선견지명과 실행력을 갖춘 인물로, 로마왕정을 종결하고 공화정을 출범시켰던 루키우스 유니우스 브루투스(기원 전 509년)이다. 개인보다는 법이 지배하는 국가의 초석이었던 공화정 체제는 브루투스의 개혁에 힘입어 그 후 500년 간 지속된다.

그밖에 2차 포에니 전쟁의 중반에 등장하는 스키피오라는 장군 역시 훌륭한 지도자의 반열에 든다. 로마사에서 훌륭한 지도자상은 카이사르에 이르러 그 절정을 이루게 된다.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자질인 지성, 설득력, 지구력, 자제력, 그리고 지속적인 의지라는 다섯 가지 덕목을 모두 갖추었던 인물로 카이사르를 들고 있다.

한 나라가 적시에 현명한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대단한 행운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머리를 빌릴 수 있다고들 이야기한다. 그러나 지도자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선견지명과 같은 머리의 힘은 결코 타인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나라의 일을 맡을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백성들이 깨어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를 선택하는 데 보다 정확하고 풍

부한 정보가 국민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공개토론회와 같은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갖춘 지식이나 지성이 대중들에게 적나라하게 공개될 수 있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 아닌가?

정치체제의 현명한 선택이 변영의 기반이다.

한 국가의 구성원들은 정치체제를 벗어나 살아갈 수 없다. 로마사에서 중요한 사건은 로마가 포에니 전쟁의 승리로 대표되는 대외팽창정책으로 겪게 되는 후유증을 들 수 있다. 로마가 기원 전 509년부터 유지, 발전시켜왔던 원로원 체제(원로원, 집정관, 그리고 민회의 3각 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공화정 체제를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를 두고 로마 사회는 심한 국론 분열을 맞게 된다.

카이사르를 중심으로 하는 카이사르주의와 카토와 키케로를 중심으로 하는 카토주의는 충돌하게 되고, 카이사르의 루비콘 강 도하로 시작되는 내전으로 번지게 된다. 카이사르는 원로원 계급의 동맥경화, 통치영역의 확장으로 인한 민회 운영과 집정관 운영의 비효율, 그리고 사회의 빈부격차 등 산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화정과 같은 정치체제의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게 된다. 결국 선견지명을 가졌던 카이사르의 결단으로 로마는 수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로마 융성의 최대원인을 제도 개혁에서 찾고 있는 시오노 씨는 역사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로마가 융성한 원인을 정신적인 것에서 찾지 않은 세 사람(리비우스의 『로마사』, 폴리비우스의 『역사』, 디오니시오스의 『고대 로마사』)의 태도다. 나 자신도 전부터 융성이나 쇠퇴의 요인을 감성적인 것에서 찾는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융성은 당사자들의 정신이 건전했기 때문이고, 쇠퇴는 정신이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식의 논법을 납득할 수가 없다.

그보다 로마융성의 원인은 당사자들이 만들어낸 제도에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기분만큼 변덕스러운 것은 없으며, 기분을 새롭게 해달라고 아무리 설득해도 모든 사람이 기분을 일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분을 일신하려면 일신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 수밖에 없다. 즉 제도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강력한 권한이 부패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논리로 내각제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전히 분단된 상태의 한반도, 통일 한반도 역시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논쟁적인 우리들의 심성을 충분히 고려하면 내각제와 같은 체제가 우리에게 적합한 것일까? 그리고 단임제나 중임제와 같은 운용의 방법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인치(人治)와 자의적인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를 법(law)이 지배하는 사회로 변화시키기 위해 법제개혁을 추구해야 한다.

로마가 거대한 제국을 이루면서 수많은 민족과 종교를 로마라는 하나의 나라 안에 품고 비교적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법의 지배the rule of law’라는 대원칙을 확립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로마법의 기원은 기원 전 449년 발표되었던 ‘12표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의 부동산에 대한 공정분배와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로마법은 철저한 사적 재산권의 보호를 기반으로 출발하게 된다. 로마인에게 사유재산의 보호는 자명한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훗날 토지집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라쿠스의 농지개혁 입법에서조차 그 대상은 국유지만을 분배대상으로 할 뿐이었다.

그러나 법의 지배는 로마제정 말기에 이르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왕은 권력 유지를 위해 군인들의 요구조건을 수용하면서 법의 지배는 점점 군대와 같은 이익단체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입법legislation의 지배’로 바뀌게 된다. 결국 계속적인 임금인상과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증가는 로마를 쇠퇴의 길로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법의 지배를 어떻게 확립한 것인가라는 문제는 우리에게도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나는 사적 재산권의 보호, 계약의 자유와 같은 대원칙은 점점 특정 이익단체에게 편익을 가져다주는 각종 입법으로 대체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입법의 취지는 사회정의나 경제정의를 위하는 경우도 있고,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입법조치의 상당 부분은 법의 지배라는 기반을 잠식함으로써 결국 변영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가?

다음으로 아직도 우리는 법의 지배보다는 인치人治가 앞서는 사회이다. 윗사람의 말 씀이나 심기로 국가의 정책이 바뀔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어떻게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권력을 적절하게 법의 지배하에 둘 것이냐는 주제도 우리가 고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개방적인 체제로 국가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

세계사에서 로마인만큼 개방적이었던 민족도 드물 것이다. 로마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최초의 세계인cosmopolitan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의 개방성은 정복민들에 대한 시민권 부여와 정복민들에게 거의 완전하게 가까운 자치를 허용하는 것을 보면 된다. 민주주의가 가장 번성하였던 아테네의 경우 아무리 오랫동안 아테네에 살았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이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완전히 봉쇄되고 있었다. 그러나

유독 로마인의 경우는 로마연합이라는 일종의 연방주의 개념을 도입해서 로마연합의 동맹국, 라틴동맹의 가맹국, 식민지, 그리고 동맹국 등으로 엮어진 거대한 준準 연방 국가를 건설하게 된다. 이 같은 연방국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로마를 중심으로 계획적인 고속도로를 건설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로마인들의 삶에 있어서도 개방성은 돋보인다. 로마인들은 항상 배움에 대해 인색하지 않았다. 자신들이 모든 면에서 앞설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한 것이 로마인이었다. 심지어 식민지인 그리스의 노예들을 초청해서 배움에 열심이었던 적도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오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로마인의 남다른 점은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다 하려들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들은 어느 분야에서나 자기네가 제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제 완전히 로마에 동화한 에트루리아인은 여전히 토목사업에서 솜씨를 발휘했고. 이탈리아 남부의 그리스인은 통상을 맡고 있었다. 시칠리아가 세력 하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그리스 문화가 도입된 이후로는 예술도 철학도 수학도 모두 그리스인에게 맡긴 듯한 느낌이 든다. 이런 로마인의 개방성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점점 확대되어 갔다.”

“고대 로마인이 후세에 남긴 진정한 유산은 광대한 제국도 아니고, 2천 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서 있는 유적도 아니며, 민족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른 상대를 포용하여 자신에게 동화시켜 버린 그들의 개방성이 아닐까.

우리 현대인은 어떤가. 그로부터 2천 년 세월이 지났는데도, 종교적으로는 관용을 베풀 줄 모르고, 통치에 있어서는 능력보다 이념에 얽매이고, 다른 민족이나 다른 인종을 배척하는 일에 여전히 매달리고 있다. ‘로마는 아득히 멀다’고 말하는 것도 시간적으로 멀다는 뜻만은 아니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개방성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한국과 같은 작은 나라의 경우에 개방성은 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개방성은 필연적으로 변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 보더라도 폐쇄적이고 수동적으로 처신했던 시절은 우리에게 무척이나 암울한 시기였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대외지향적인 분위기가 나라 전체를 감싸고 있을 때는 국운이 번성하였다. 우리는 무역이나 산업의 모든 면에서 폐쇄적인 부분에 대해 과감하게 문호를 개방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뿐만 아니라 국토라는 개념을 굳이 한반도에 국한할 필요가 없다. 한반도라는 땅을 홈베이스(home-base)로 해서 상인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공장을 세우고 사람을 고용하면 이것 역시 새로운 의미의 국경 개념에 포함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어느 기업이 내세우는 세계경영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국토에서 벗어

나 새로운 의미에서의 국토를 추가하는 것이 아닌가?

개방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한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관행이나 관습으로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야 한다. 아이들 세대는 개방된 세계에 걸맞는 교육을 갖추도록 단단히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특히 젊은 세대는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나라에 가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대외적인 개방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체제내 개방성도 절실히 요구된다. 체제내 개방성이란 한국이란 나라가 연방주의를 지향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연방주의란 집중된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정부로 이전해야 함을 뜻한다. 체제내 개방성은 각 지방정부가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행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지방정부간의 치열한 경쟁은 대외 개방의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지방정부의 권한은 그냥 주어질 수가 없다. 권한을 얻기 위한 지속적인 설득과 갈등을 겪고 난 다음에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거대하게 집중된 현재의 중앙정부로서는 어떤 형태의 개방도 가능한 일이 아니다. 체제 내 개방성의 전제조건은 중앙정부의 권한 위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의 능력의 차이와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여야 한다.

로마인은 세계사에서 다신교를 인정하면서 제국을 건설하였던 유일무이한 민족이었다. 다신교에서는 인간의 행위나 윤리도덕을 바로 잡는 역할을 신에게 요구하지 않는 반면에 일신교에서는 그것이 바로 신의 전매특허라고 할 수 있다. 로마인이 종교에 대해서 대단히 관대하였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특히 자신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었음을 뜻한다. 시오노는 로마의 다신교가 로마의 번영에 끼친 공헌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로마를 강대하게 한 요인은 종교에 관한 사고방식이었다. 로마인에게 종교는 지도원리가 아니라 버팀대에 불과했기 때문에 종교를 믿음으로써 인간성까지 속박당하는 일도 없었다. 강력한 지도원리를 갖는 것에는 이점도 있지만, 자기와 종교가 다른 남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부정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다양성은 오늘의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그밖에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독점은 강력히 비난받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정치와 경제의 분리, 정치와 종교의 분리에 우리는 익숙해 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의식세계에는 알게 모르게 집단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짙게 깔려있는 경우가 많다. 모든 종류의 창조성, 그리고 어떤 사회의 활력은 다양성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닌가? 너와 내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개인주의가 자리를 잡아나가는 것을 뜻한다. 뿐만 아니라 임금이나 보수체계 등에서도 능력에 따라 서로 다른 대우가 주어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사회적 관행으로 자리를 잡아나가는 것을 뜻한다. 한국 사회에 팽배해 있는 평등주의적이고 집단주의적인 정서나 관행, 그리고 제도(노동관련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로마인은 법과 도로를 남겼다. 오늘날 로마를 방문하는 사람이 흔히 들르는 곳이 기원 전 312년에 만들어진 아피아가도라는 도로이다. 로마시대에 만들어진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튼튼한 외관을 온전하게 간직하고 있다. 로마인들이 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열심이었던 것은 도로가 제국은 운용하는 데 필수품이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누구나 도로가 국토의 동맥인 것을 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2천 3백여 년 전에 도로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체계적으로 건설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은 로마인들이 거의 유일하였다. 기원 전 312년을 기점으로 로마를 중심으로 사방팔방으로 도로망이 확충되어진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생길 정도로 유럽과 아시아 및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줄지어 로마인의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특히 로마인 가운데 긴 안목을 갖고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서둘렀던 사람으로 카이사르를 들 수 있다. 그는 짧은 재임 기간 동안 기원 전 146년에 멸망하여 완전히 폐허상태에 있던 카르타고와 코린트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돌지 않고 이탈리아에서 곧바로 에게해에 다올 수 있도록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잇는 지협에 운하를 파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했다. 이 같은 계획은 당시로서는 거의 파격적인 발상이었는데 카이사르의 죽음으로 실천에 옮겨지지 못하다가 근대에 이르러 비로소 실행되어졌다.

오늘날도 도로나 항만과 같은 한 국가의 사회간접자본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개방이란 한 국가와 다른 국가가 보다 살기 좋은 곳, 보다 기업하기 좋은 곳을 향한 체제 경쟁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체제 경쟁에서 가장 강력한 유인은 한 나라의 잘 구비된 사회간접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란 면에서 보면 우리는 충실히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정치인이나 관료들의 시계視界가 무척 짧기 때문이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인기 하락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위험을 부담하려고 하는 지도자들이 드물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은 그것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안목과 스케일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안목과 스케일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보다 수십 년을 앞

선 나라들을 둘러보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어느 정도의 결심을 굳힐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안목과 스케일이란 면에서 보면 기업인의 경험과 지식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도 과거의 고정관념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사회간접자본을 충실히 축적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필요하다면 민간자본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공채도 발행해서 다음 세대에도 적절한 부담을 지울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가? 비행기를 타 보면 온 나라 전체가 산야인데, 필요하다면 기존의 법규를 개정해서라도 임야나 산지개발 등과 같은 일이 되도록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때로는 온 나라 전체를 운하로 연결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아이디어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돈 대신에 일자리를 주는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빈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복지를 제공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로마시대에도 중요한 사회현안의 하나였다. 로마시대의 복지정책 역시 현대와 마찬가지로 정치가들의 이해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게 된다. 로마에서 최초로 복지정책이 실시된 것은 그라쿠스 형제 가운데 동생인 가이우스가 빈민층에 곡물을 싼 값에 배급하는 제도를 시행하였을 때 부터이다. 기원 전 124년 ‘곡물법’이란 이름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로마판 복지정책은 국가가 일정량의 밀을 구입해서 시가의 절반 가격으로 빈민층에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제도는 40년 후 귀족파를 대표하는 술라에 의해 폐지된다. 술라가 ‘곡물법’을 폐지한 이유는 국가재정의 건전화와 이 제도로 득을 보는 도시 무산자 계급의 표가 계속해서 ‘민중파’의 기반으로 작용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함이었다. 이후 아울렐리아 코타에 의해 부활되는 등 ‘곡물법’을 이용한 로마판 복지정책은 민중파와 귀족파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의 운명에 따라 명암을 달리하게 된다. 이 같은 사실은 이미 빈민층에 대한 밀배급을 규정한 ‘소맥법’이 정치투쟁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음을 뜻한다.

카이사르가 등장한 이후에도 이 같은 상황에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게 된다. 원로원 파의 소소 카토가 빈민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배급 인구의 상한선을 철폐하고 무제한으로 값싼 밀을 공급하자, 호민관이었던 클로디우스는 빈민층에 공짜로 밀을 배급하여 가난한 유권자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다. 이 같은 결과로 말미암아 카이사르가 집권할 초기에는 공짜로 밀을 배급받는 사람의 수가 무려 32만 명에 이르게 된다.

최고 권력자가 된 카이사르에 대해서 빈민들은 기대가 컸다. 왜냐하면 그는 민중파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이사르는 이 같은 복지 정책에 과감한 개혁을 시도한다. 공짜로 밀을 공급받는 사람의 수를 32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줄이고, 이것의 엄격한 시행을 위해 안찰관을 배치하게 된다. 세대주의 소득과 가족수 등을 엄밀히 조사하여 꼭 보조받아야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스스로 일하여 먹고 살도록 조치하게 된다.

카이사르가 실시한 여러 가지 사회개혁 가운데 복지부문의 개혁이 중요한 부문을 차지한다. 카이사르의 구상은 복지정책이 정치적인 흥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안 되며, 진정한 의미의 복지란 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이를 시오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실업은 당사자의 생활수단을 빼앗는 데 그치지 않고 자존심을 유지하는 수단까지 박탈하는 것이다. 보통 사람은 무슨 일이든 일을 함으로써 자신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확인한다. 따라서 실업문제는 복지로는 해결되지 않고, 일자리를 주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된다.”

현대 민주주의란 다수결에 의해 움직여 나가는 정치체제이다. 때문에 한국은 서구 선진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보다 많은 복지를 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 복지국가로의 전환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우선적으로 노인층의 정치세력화를 가정해 볼 수 있다. 국가가 노인층에 대해서 복지를 공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 조직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수십년간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에서 살아온 북한 동포들이 있다. 통일 한반도라는 상황을 가정해 보면 우리의 상황이 보다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복지국가에 대해 우호적인 생각을 가진 식자층의 수도 만만치 않다.

만약 우리가 서구와 엇비슷한 복지국가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면, 우리의 성장기반이 그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침식되게 될 것이다. 한국은 서구의 복지국가가 걸어온 길로부터 충분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 한국이 지향하는 복지는 돈 대신에 일자리를 주는 복지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한국은 서구형 복지국가와 달리 최소한의 부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들에게 스스로 사적 보험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에 대해서는 오늘날 칠레와 뉴질랜드의 야심적인 개혁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한국인은 보고 싶지 않은 것도 볼 수 있는 민족이어야 한다.

『로마인 이야기』에서 한국인으로서 가슴을 무엇인가가 콕 찝음을 느끼는 부분을 한 군데만 들라고 하면 카르타고의 멸망과 코린트의 멸망을 들 수 있다.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와 그리스의 코린트란 도시국가는 700여 년간 번영을 누린 도시이다. 그런데 그들은 기원 전 146년 로마인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되고 난 다음 소금이 뿌려지는 참변을 당한다. 왜, 그들은 이 같은 운명에 처하고 마는가?

우선 코린트란 도시국가는 그리스의 도시국가 가운데서 아테네, 스파르타에 이어 3대 도시국가의 하나였다. 그리스의 높은 문화를 존중한 로마인은 시종일관 그리스 민족에 대해서는 독립과 자치를 존중해 줄 작정이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그리스 사람들의 시각은 로마인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리스인들은 로마의 그런 태도가 힘 있는 자의 관용이 아니라 그리스 문화에 열등감을 가진 자의 저자세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 같은 문제인식의 결과는 결국 코린트를 방문한 로마 원로원 의원들에 대해 코린트 시민들의 무례한 대우로 나타나게 된다. 로마인의 관용주의는 여기서 끝나고 코린트에 급파된 로마군은 코린트를 철저히 파괴하고, 미술품은 몰수하여 로마로 보내고, 주민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노예로 팔아버렸다. 쟁기와 팽이로 땅을 고르듯 도시 전체가 송두리째 소멸해 버린 코린트는 오만불손한 그리스인 전체에 대한 본보기로 작용하게 되고, 결국 그리스인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리스인들은 대단히 비정치적인 민족이었다. 대의명분을 앞세우고 논쟁을 즐기는 민족이었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데는 별반 관심이 없는 민족이었다. 그리스인들은 과거의 성공에 취한 나머지 자신의 현재 실력이나 위치에 대해서는 별반 관심을 갖지 않았다. 로마에 반기를 들고 일어난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에게 동조하기 시작한 그리스인들은 심지어 “로마인이 그리스에 오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친구로서 와야지. 주인으로 와서는 안 된다”라고 호언장담하기까지 했다. 시오노는 당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기원전 2세기의 그리스인은 자유와 독립의식은 강해도 그것을 현실화하고 유지하기 위한 정치력은 페리클레스의 죽음과 함께 사라져 버렸나 싶을 만큼 비정치적인 민족으로 전락해 있었다. …… 기원 전 2세기 당시의 그리스인에 대해서는 로마인도 경멸감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유와 독립을 부르짖는다는 점에서는 기원 전 2세기의 그리스인도 페리클레스 시대와 다를 바 없었다. 달라진 것은 이 자유와 독립을 현실화하는 방법이었다. 기원 전 2세기의 그리스인은 다른 나라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친구의 위기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알지 못했다.”

한편 카르타고의 경우 후세 사람들은 로마인이 일부러 전쟁으로 몰아넣은 감이 없지 않다고들 평가한다. 카르타고의 경우 로마가 내린 최후통첩 즉, 수도 카르타고를 파괴하고, 주민을 해안에서 10로마마일(15킬로미터) 떨어진 내륙지방으로 이주시킬 것 등이 과연 로마와 전면전을 결심할 만큼 가혹한 요구이었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

다. 물론 오랫동안 카르타고인은 집에서 한걸음만 나오면 곧바로 배를 탈 수 있는 도시생활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렇지만 고대의 북아프리카는 해안에서 15킬로미터 떨어진 곳에는 울창한 숲을 가진 기름진 땅이 많았다. 얼마든지 해안선까지 높고 견고한 벽을 쌓아 일종의 ‘복도’를 만들어 생활할 수도 있었다. 이 같은 현실적인 대안을 무시하고 필연적으로 멸족이란 비운을 맞을 수밖에 없는 로마와의 전면전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시오노는 안타까움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기원 전 2세기 중엽의 카르타고인이 발상을 전환할 수는 없었을까. 수도 카르타고가 천연의 요충지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방으로 이주한다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을까. 아니면 강대국이었던 역사를 가진 민족이 그렇게까지 해서 살아남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 것이었을까.”

두 가지 사건은 오늘의 한국인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시오노 씨는 그의 작품 전체에서 거듭 카이사르가 『내전기』란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부분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것밖에 보지 않는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다. 대의명분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흔히 현실에서 명백히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조차 눈길을 주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마도 이 같은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심성이 아닌가 한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 나름대로 세계관을 갖고 살아간다. 때문에 자기의 세계관에 잘 맞지 않는 일이나 사건을 애써 무시해 버리려고 하게 된다. 특히 한 민족 전체에 이 같은 이야기를 적용하면, 민족성이 대의명분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이념적이고 논쟁적인 민족일수록 보고 싶은 것만을 볼 확률이 높다. 현실에 애써 눈을 감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야 마는 것이 역사의 교훈인 것이다. 그러기에 나라의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이나 나라의 일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식인들은 보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보고 싶지 않은 것까지도 볼 수 있는 용기와 예지를 지녀야 한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한민족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땅덩어리를 옮길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12억이나 되는 중국이란 나라, 2억의 인구와 막강한 경제력을 지닌 일본이란 나라, 세계 최강국인 미국, 그리고 공산사회의 맹주였던 러시아란 나라와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소국은 항상 대의명분보다는 실리를, 게다가 보고 싶지 않은 현실까지도 냉철하게 계산해서 조심조심 움직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독도 문제, 한.중간 환경오염 문제, 한.중.일간 영해 문제, 연변의 조선족 문제, 한.미간 협조문제 등 어느 것 하나, 보고 싶지 않은 현실을 애써 외면할 때는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하는 것들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문제 역시 이 같은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정신적 자본Mental Capital을 축적해야 한다.

어떤 사회라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도로나 항만과 같은 물적 기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기반이 필요하다. 역사에서 무력만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나라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를 재패할 수 있었던 스파르타인에게는 생활철학의 빈곤이 쇠퇴의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에 반해 로마인들이 갖고 있었던 강력한 정신적인 토대는 로마가 많은 민족과 종교를 동화하면서 세계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로마사회는 계층 간의 이동이 보장되는 유동적인 사회였다. 때문에 계급갈등과 같은 사회의 동맥경화 현상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었으며, 귀족, 평민, 노예, 그리고 외국인 등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구성원들은 로마인, 즉 포풀루스 로마누스(populus romanus)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국난 때마다 협동을 통해서 로마를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로마사에는 집정관에 속주 출신들이 대거 당선되기도 하고, 혁혁한 전과를 올린 인물 중에 로마의 속주 출신들이 많다. 능력이 있으면 그 출신성분에 관계없이 시민권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로마사회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로마사회를 지탱했던 가장 큰 정신적인 덕목은 가진 자의 책무라고 할 수 있는 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 Oblize)라고 할 수 있다. 로마인들은 저지대에 놓인 습지라는 불리한 환경을 기반으로 타민족과의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세워나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로마인들에게는 국가가 '레스 푸블리카', 즉 공공의 것이라는 인식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 그들은 국가를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적인 일을 맡은 사람이 자신의 사익보다는 공익을 앞세우고 군무와 같은 의무를 달성하는 데 열심이었다. 어린 후계자만을 남기고 일족이 모두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파비우스 가문이 로마 귀족들의 강한 의무감을 실증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공직에 서는 사람들 대부분은 10여 년 정도의 군무를 통해서 귀족의 책무를 몸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노블레스 오블리제 정신은 대외 팽창으로 인한 급속한 부의 축적과 함께 많은 부분이 손상되게 된다.

귀족의 책무는 로마 상류층들의 거의 의무적인 군대 경험에서도 찾을 수 있다. 공화정 로마에서 정치적으로 출세하기를 바라는 자는 10년의 군단 경험을 쌓아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 시오노는 고대로마에서 특히 공화정 시대의 로마 지도자들이 '잔쟁이'들이 아니었던 까닭을 군경험에서 찾고 있다. 아무래도 부하를 거느리는 경험을 10여 년 하다보면 노블레스 오블리제와 같은 정신력이 몸에 배는 것이 아닐까?

끝으로 귀족과 평민을 불문하고 로마사회를 뒷받침했던 사회적인 규범은 신의(fides)와 명예라고 할 수 있다. 로마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의 특이한 사회제도였던 ‘

파트로네스patrones'와 '클리엔테스clientes'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파트로네스는 후원자를, 클리엔테스는 도움을 받는 사람인 피후원자로 이루어져 있었다. 대부분의 귀족들은 평민들과 클리엔테스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귀족들은 자신의 클리엔테스의 경제적이고 가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언과 도움을 주었다. 이에 반해 클리엔테스는 자신의 파트로네스의 정치적인 출세에 헌신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이 같은 관계가 로마 사회의 기본적인 기초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신의를 중시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기원 전 1세기,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의 대결이 본격화되기 직전 카이사르가 아끼던 부장 라비엔누스가 그의 파트로네스였던 폼페이우스를 찾아 떠나는 사건은 로마인의 신뢰관계를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로마사회의 구성원들은 명예와 용기를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고, 명예를 잃어버린다는 사실은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여기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명예와 용기와 같은 덕목은 전쟁을 통해서 성장해가는 나라에 있어서 대단히 강력한 무기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노블레스 오블리제, 신의, 명예와 용기 등으로 대표되는 로마사회의 정신적인 기반이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오늘의 한국 사회는 시장경제free market와 민주주의democracy라는 양대축을 기반으로 움직여 나가는 사회이다. 로마라는 사회가 전쟁을 통해서 성장해왔다면, 오늘의 한국이란 사회는 무역을 통해서 성장해가는 사회이다. 무역을 통해서 국부를 축적해가는 나라라면, 현대의 한국인이 가져야 할 정신적인 덕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

새로운 생산방식,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부를 축적해 가는 자에 대한 존중, 계약과 교환을 통한 부의 축적에 대한 이해, 자신의 일을 가급적 스스로가 처리하고 가능한 한 정부에 대한 의존심을 줄여나가는 자립심, 자신이 책임져야 할 부분을 타인에게 전가하지 않는 마음 등을 들 수 있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라는 양대축이 계속적으로 부를 만들어 내면서 성장해가기 위해서는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의 탄탄한 기반이 필요하다.

일부 학자들은 이를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도덕적 자본moral capital 혹은 정신적 자본mental capital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를 축적해 나가기 위해서는 건전한 시민운동의 활성화, 이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 두뇌집단think-tank의 활동, 그리고 작은 정부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현장을 중시하고, 현장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로마 시대는 과학기술의 발명과 같은 면에서 보면 그렇게 큰 업적을 이룬 시대는 아니다. 예를 들면 귀족들이 공식적으로 상업행위에 종사할 수 없었다. 그러나 로마인들은 전쟁술의 진보에서는 큰 업적을 남기게 된다. 로마는 전쟁을 통해서 제국을 이루는 데 성공한 나라이다. 때문에 로마시대의 생산은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로마 군대를 움직이는 핵심적인 인물들은 소대원의 투표로 선출되는 백인 대장들이었다. 이들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베테랑으로서 전술을 정확하고 충분히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로마의 군기와 전통을 유지하면서 로마 군대의 막강한 전력을 유지했던 사람들은 현장 정보에 정통한 백인대장들이었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로마군이 이룬 개선활동은 눈부실 정도이다. 전술과 무기에서 이루어진 끊임없는 개선활동이 로마군의 전력 증강에 크게 이바지했다. 예를 들어, 해군을 갖지 못한 로마군이 카르타고와의 해전에서 개발해낸 까마귀라 불리는 신무기는 해상전투를 육상전투로 바꿈으로써 로마가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두일리우스의 로마군이 카르타고의 5단층 깎리선을 대적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이 기술은 카르타고의 항해술을 무력화하는 데 기여한다. 이처럼 다른 분야에 비해서 로마군의 개선활동이 활발했던 이유는 인센티브 제도가 큰 역할을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으로 로마군의 전력 향상에 기여한 것은 모든 것을 매뉴얼화 혹은 체계화하는 로마군의 관행을 들 수 있다. 같은 시기 오리엔트의 국가들이 승전이나 패전에 대한 기록을 거의 남기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로마인의 기록을 남기고 분석하는 관행과 전통은 전력 향상에 큰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로마인에게는 무엇이든지 체계화해야 할 이유가 있었다. 지휘관부터 병사까지, 군대 전체가 해마다 바뀌는 것이다. 그러니, 누가 해도 같은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자세한 부분까지 미리 결정해둘 필요가 있었다. 그렇기는 하지만 로마인은 참으로 철저했다. 고작 하룻밤 사용할 숙영지도 우직하게 교본대로 건설했다. 교본도 잘 만들어져 있어서, 제정시대가 된 뒤에도 바꿀 필요가 없었다. 바꾸기는커녕, 로마인은 이 숙영지 건설법을 신도시 건설에도 적용했다.”

다음으로 원로원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에도 전쟁과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있는 장군이 자신의 책임 하에 기량을 한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치적인 힘의 개입을 최대한 억제하였다. 이 점은 마키아벨리가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점인데, 공화정 로마에서는 군사령관을 겸임하는 집정관에게 일단 임무를 주어 내보낸 뒤에는 원로원조차 작전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임지에서 전략이나 작전을 짜는 것도

완전히 집정관에게 일임되어 있었다. 패전 책임을 묻지 않는 것도 걱정없이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강화를 제의하거나 제의받는 것은 물론이고, 강화 조건을 제시하는 것부터 강화 교섭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집정관에게 일임되어 있었다.

현장을 중시한다는 것은 오늘날 무엇을 뜻하는가? 로마 시대의 군대는 오늘날 시장이라는 현장에 서서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이 반드시 상인이나 기업가라고 국한할 필요는 없다. 자신이 노력한 대가를 받아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현장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 배움이 많은 사람들, 예를 들면 지식인이나 관료나 정치가들은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정보를 대단히 높게 평가하는 대신에 현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가진 지식이나 정보는 낮게 평가하는 고약한 습관을 갖고 있다.

전쟁의 승리, 시장에서의 승리 등 오늘날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부의 태반은 현장에 서 있는 사람들의 안목과 결단, 그리고 실천력에서 나온다. 때문에 번영을 원하는 국가라면 배움이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서 있는 사람에게 보다 많은 자유를 주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게다가 관료나 정치가, 그리고 지식인들이 현장에 서 있는 사람들의 활동에 개입하고 싶은 욕구, 혹은 통제하고 싶은 욕구를 가능한 한 억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요컨대 한국인이 번영된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한다면 가능한 한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을 억제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경제적인 독점력이 가져오는 폐해에 대해서는 법에 의한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역시 정치권력과 시장권력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어야 한다.

역사적 경험을 중시하고 역사로부터 배워야 한다.

로마인의 성공에서 큰 획을 긋는 사건은 로마가 왕정 체제의 문제점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일어나게 된다. 로마는 당시 그리스의 앞선 체제를 배우기 위하여 3명의 원로원 위원으로 구성된 시찰단을 아테네에 파견한다. 후진국 로마의 선진문물 시찰단이 파견되던 해는 기원 전 453년부터 기원 전 452년까지 1년 동안이었다.

시찰단이 도착할 당시 아테네는 최고의 전성기를 자랑하던 ‘페리클레스의 황금시대’였다. 페리클레스 시대는 기원 전 430년부터 30년간 계속된다. 로마의 시찰단이 본 페리클레스 시대는 한 점의 문제점도 보이지 않았던 아테네였다. 그들이 본 아테네는 아테네인을 수족처럼 부려서 자기 구상을 하나씩 실천에 옮기고 있었던 페리클레스였다. 보통의 사람이었다면 누구든지 아테네의 직접민주정치를 추종하는 열성분자가 되

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로마 원로원 위원들은 아테네가 가진 어두운 점을 정확하게 꿰뚫고 그 단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게 된다. 그들은 ‘겉모습은 민주정치였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이 지배하는 나라’로 아테네의 약점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다. 시찰단의 결과는 공화정 체제의 등장으로 현실화되기 시작한다. 시오노는 이점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로마는 아테네를 모방하지 않았다. 강대한 아테네도 항상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스파르타를 모방하지도 않았다. 쇠퇴기에 접어든 나라를 찾아가 거기에 나타난 결함을 타산지적으로 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절정기에 있는 나라를 시찰하고도 그 나라를 흉내내지 않는 것은 보통 재주가 아니다.”

어떤 나라든지 진보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비슷한 역사적 궤적을 걸어온 나라들의 경험을 면밀히 조사하고 비교하는 가운데 배워야 할 것, 그리고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을 가려내야 한다. 역사는 정확하게 반복되는 것도 아니고 역사를 관류하는 법칙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할 때, 나라나 조직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과거와 엇비슷한 경험을 다시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가 걸어온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하여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가? 나라뿐만 아니라 기업과 같은 조직 역시 앞서 걸어가는 기업들로부터 흥망성쇠의 교훈을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만약 우리들이 역사의 경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역사로부터 배움에 인색하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겠는가!

준마 이야기

1997년 12월 26일 1판 1쇄 발행
2019년 10월 8일 1판 2쇄 발행

저자_공병호
발행자_최승노
발행처_자유기업원
주소_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9
전화_02-3774-5000
팩스_0502-797-5058

비매품
